

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. 창3장에 첫 인생이 타락한 이후 끝없는 재난과 전쟁은 성경에 예언된 것이다. 이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? 성경은 인생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기록한 것이다. 그래서 본문 1-2절에 목마르고, 배고프고, 고통 당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와 들으라고 한 것이다.

개인과 가정의 문제든, 교회의 문제든, 시대의 문제든 성경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한다.

**첫째,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것이다(사7:14, 9:6, 53:5, 60:1-2)**

**이것이 천명이다.** 어떤 일 당해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된다.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기 때문이다(고전1:24)

**둘째, 이 그리스도 안에서 쓰임 받을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. 그들을 남은 자라고 했다(사6:13, 10:21-22).**

**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명이다.**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은혜와 사랑이 있다(롬11:5)

이 속에서 구원받았다. 우리의 고통은 이 은혜를 깊이 누리는 기회다. 평생 그 은혜 누리며 살면 된다(고전15:10).

**셋째, 이 절대 해답과 절대 은혜를 붙잡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살리겠다는 것이다(사49:6, 사60:1-5)**

**이것이 절대 해답과 절대 은혜를 붙잡은 자들의 사명이다.** 우리가 아무리 작은 자요 부족해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랑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뭐든지 할 수 있다(사60:21-22)

하나님은 이 절대 계획을 약속으로 주신 것이다.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고,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다(3절)

## 1. 이 언약 가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다(4절).

성공하려고 애쓰지 마라. 좋은 대학, 좋은 직장이 문제가 아니다.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라(영적 씨앗)

### 1) 그들을 만민의 증인으로 세우신다고 했다.

그리스도의 마지막 약속도 이것이다.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것이다(행1:8)

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. 보좌의 하나님이 나의 절대 망대가 되어주셨다(사62:6-7).

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도, 우리가 겪는 어려움, 위기도, 우리가 겪는 눈물과 고통도 이 결론 잡고 가면 된다.

그냥 증거 아니다. “만민을 살릴 수 있는 증거”이다. 우리의 증거와 간증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.

### 2) 그들을 만민의 리더로 세우신다고 했다.

리더라는 단어는 앞서가는 자란 뜻이다. 앞서가면서 무엇을 하는가?

길을 말해주고(요14:6), 답을 말해주고(요19:30), 비전을 심어주는 자들이다(행2:17),

현장에서 불신자 수준으로 살면 안 된다. 선교 가서 엉뚱한 일하다 오면 안 된다. 이 일을 하고 오면 된다.

### 3) 그들을 만민의 명령자(사령관)으로 세우신다고 했다.

사람들이 고통과 재난을 당하면서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는 채 당하는 것이다.

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해주면서 그 이름의 권세로 배후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깨부수고 오는 것이다(막16:17-18)

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,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하는 자들은 잠깐 머문 자리, 공간에도 흐름이 바뀐다.

## 2. 이 언약 가진 자들을 왜 이렇게 축복하셔야 하는가?

모든 민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, 계획이고, 하나님의 결론이기 때문이다(사66:22)

**이 하나님의 마음, 계획, 결론을 놓치고 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일부로 문제 속으로 보내신다.**

### 1) 첫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, 포로, 속국을 허락한 이유도 이것이다.

#### ① 노예 시대에 부름 받은 두 사람이 누구인가?

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주인이 인정하고(창39:3), 왕이 인정했다(창41:39)

나중예야 하나님이 왜 자기를 형들을 통해 애굽으로 보냈는지를 알게 된다(창50:20)

왕자로 자랐지만 살인자, 도망자, 무능자가 된 모세를 찾아와 바로 왕에게 보내셨다(출3:18)

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 백성들을 짓밟던 바로 왕을 꺾으시고, 이스라엘을 400년 노예에서 해방시키셨다.

#### ② 이사야서가 기록된 포로 시대에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부름 받은 두 사람이 누구인가?

총리로, 왕후로 세웠지만 사단이 그들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다.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보이셨는가?

사자 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평소대로 감사하며 기도한 다니엘을 하나님이 살렸고, 왕이 인정을 했다(단6:26)

에스더는 그 유명한 “죽으면 죽으리이다” 고백하고,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섰을 때 대적들이 완전히 꺾였다.

#### ③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된 시대에 하나님께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난 마가다락방 교회를 어떻게 쓰셨는가?

베드로를 통해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,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셨다고 했다(행2:42, 47)

더 큰 핍박이 오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안디옥으로 보내어 첫 번째 세계 선교를 하게 하신 것이다.

18세기에 보잘 것 없는 섬나라인 영국을 쓰신 이유가 이 나라의 교회들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다.

19세기, 20세기에 미국을 쓰신 이유가 이 미국의 교회들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다.

21세기에 가장 무지하고 가난하고,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을 쓰시는 이유도 이것이다.

**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하나님의 마음이고 절대 계획이고 결론인 선교에 방향을 맞추면 이렇게 쓰시는 것이다.**

### 2)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를 부를 것이라고 했다(5절상).

#### 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라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, 헌신하고,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인을 주신다.

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깨닫고, 그 축복의 사인을 미리 보는 것이다.

#### ② 바울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갈 때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게 하신 것이 이것이다(행16:9-10)

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분명히 준비된 다민족, 237 나라와 오천 종족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.

**문제 속에서도 조금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, 그 분의 마음을 담고 기도해보면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.**

### 3)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 올 것이라고 했다(5절하)

#### ① 여기서 “달려 온다”는 히브리어 단어는 갈급함과 간절함과 열망을 가지고 온다는 뜻이다.

우리 교회에서 만난 모든 다민족 제자들이 이런 갈급함과 간절함과 열망을 가지고 온 것이다.

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이어야 하는 이유와 답을 전했는데, 그들의 모든 것이 증거가 되고, 하나님이 세우셨다.

#### ②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 하실 것이다.

**지금 일어나는 모든 재난과 전쟁의 소식들은 그 날이 가까워 왔다는 사인이다.**

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뒤에 끝이 올 거라고 했다(마24:14). 여기에 쓰임 받는 자들이 절대 제자들이다.

**결론-**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순간 이미 영화롭게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.

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백성들에게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과 권세와 그 분의 영광이 있다(사60:1-2).

오늘 선교 헌신 예배가 우리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축복을 더 깊이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한다.